

溪堂 柳壽陸의 교육활동

姜 文 植*

Ⅰ 차례 Ⅰ

- I. 머리말
- II. 講會를 통한 교육
- III. 問目答書를 통한 교육
- IV. 맺음말: 유주목 교육활동의 의의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세기 학자 溪堂 柳壽陸(1813~1872)의 교육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유주목의 교육활동은 강의를 통한 교육과 問目答書를 통한 교육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강의를 통한 교육은 1868년에 실시된 講會의 절목인 『溪堂講會節目』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강회의 교재는 『小學』으로, 여기에는 ‘日用의 실천’을 학문의 궁극적 목적으로 생각한 유주목의 학문관이 반영되어 있다. 또, 『계당강회절목』에는 강회의 진행 절차와 講生들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들이 실려 있는데, 이를 보면 유주목은 지식적인 성취보다도 학문에 임하는 바른 자세, 강생 상호간의 존중과 격려, 스승에 대한 공경 등 실천의 측면을 더 중시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주목은 제자들이 질문 내용을 問目으로 정리해 보내면 그에 맞는 답변을 회신해 주었는데, 이러한 問目答書는 그의 교육활동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問目的 내용은 喪禮·祭禮에서 禮書의 일반 규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變禮에 관한 것이 대부분인데, 禮學에 조예가 깊었던 유주목은 문목 내용을 연구하여 그에 부합하는 내용을 答書로 보냈다. 한편, 『心經』과 『大學』에 관한 問目答書에서는 ‘日用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원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마음공부를 강조했는데, 이 역시 실천을 중시하는 그의 학문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주목의 교육활동은 도덕적·현실적 실천을 중시했던 西厓學派의 학풍을 계승한 것이다. 한편, 유주목은 儒家의 전통적 교육 방식과 내용을 고수했는데, 이는 그가 19세기 西勢東漸의 물결 속에서 '崇儒敎'를 통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나름의 대처 방안을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柳疇睦, 『溪堂講會節目』, 『小學』, 問目答書, 西厓學派

I. 머리말

溪堂 柳疇睦(1813~1872)은 19세기 영남을 대표하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 李滉-柳成龍의 학통을 계승한 인물이었다.¹⁾ 조부 柳尋春의 문하에서 수학한 유주목은 평생동안 관직에 나가지 않고 향촌에 은거하여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유주목은 “학자는 모름지기 日用常行에 힘써야 하며 강론과 저술에 뜻을 두어야 한다.”²⁾라고 하였다. 이는 그가 학자의 본분에 대한 견해를

1) 이황에게 수학한 유성룡의 학문은 그가 상주 목사로 재직할 때 상주의 사족인 鄭經世에게 이어졌고, 정경세는 유성룡의 3남인 柳軫에게 학문을 전하였다. 유진의 학문은 그의 사위이자 정경세의 손자인 鄭道應에게 전해졌고, 다시 정도응의 현손 鄭宗魯, 정종로의 문인 柳尋春 등을 거쳐 유심춘의 손자인 유주목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유성룡에게서 시작된 서애학파의 학통은 풍산 유씨와 진주 정씨의 가학을 통해 유주목에게 전수되었다. 유주목의 학통 및 그 특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인수, 『溪堂 柳疇睦과 閔山 柳道洙의 학통과 그 역사적 위상』, 『퇴계학과 한국문화』 44, 2009, 12-16쪽을 참조.

2) 『溪堂全書』(上), 附錄 권1, 「行狀」(柳道洙 著), “學者 須盡力於日用常行 而留意於講論著述.”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학자라면 반드시 자신이 배운 학문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하며, 또 교육[강론]과 연구[저술]를 자신의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제시한 학자의 본분을 일생동안 실천하며 살았다. 즉, 그는 향촌에서 학문에 전념하면서 많은 문인들을 양성했으며, 또 『全禮類輯』(예학)·『四七論辨』(성리학)·『朝莖約全』(정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유주목의 학문 활동 중에서 교육 부분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교육은 유주목의 학문 활동에서 저술과 더불어 두 축을 이루는 핵심 분야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유주목의 학문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특히, 교육 내용의 분석은 그가 연구했고 가르쳤던 학문의 실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주목의 교육활동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강의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門人들이 보낸 問目에 대해 答書를 보내 가르치는 것이었다. 전자가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교육이었다고 한다면, 후자는 問目 내용에 맞는 답변을 제시하는, 개별적·맞춤형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이 두 가지 방식을 중심으로 유주목의 교육활동을 검토하고자 한다. 강의를 통한 교육은 유주목이 56세 때인 1868년(고종 5)에 실시했던 『小學講會』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 問目答書를 통한 교육은 『溪堂集』에 수록된 서신 중 '答○○問目(別紙)'라는 제목이 붙은 편지들의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II. 講會를 통한 교육

유주목은 이황-유성룡의 학통을 계승한, 19세기 영남의 대표 학자 중 한 사람이었으므로, 일찍부터 많은 학자들이 그의 문하에 와서 수학하였다. 유주목은 문인들을 대상으로 자주 講會를 실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구체적인 사례가 확인되는 것은 1868년(고종 5)에 시행된 『소학』 강회이다. 유주목의 「행장」에 따르면, 무진년(1868)에 유주목이 溪亭(溪堂)에서 『소학』을 교재로 하는 강회를 실시했는데, 많은 선비들이 강회에 참석하여 유주목의 강론을 들었다고 한다.³⁾

유주목의 「행장」에는 당시 강회 운영에 관한 절목을 제정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⁴⁾ 그 절목이 바로 『溪堂集』 권11에 실려 있는 「溪堂講會節目」이다. 「계당강회절목」은 총 1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제1·2 조항은 강회의 교재에 대한 설명이고, 나머지 16개 조항은 강회 진행에 관련된 규정 및 주의사항들이다.⁵⁾ 이에 본 장에서는 「계당강회절목」의 내용 분석을 통해 유주목이 실시한 강회 교육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앞의 글, “戊辰……是年 講小學于溪亭 讀白鹿洞規 行相揖禮 士多興起.”

4) 앞의 글, “其在溪亭講會也 講立節目.”

5) 유주목은 『全禮類輯』을 편찬하면서 권21-24에 「學校考」 항목을 두어 조선의 학교 제도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했는데, 이것이 「계당강회절목」의 제정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권21의 「學令條」에는 성균관의 學規인 「學校模範」이나 權近의 「勸學事目」에서 『소학』 교육에 관한 내용만 발췌한 「學校事目」 등이 실려 있는데, 이는 「계당강회절목」과 내용적인 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또, 권22의 「故事條」에는 序齒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는 「계당강회절목」에서 나이순으로 座次를 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계당강회절목」 제정에서 『全禮類輯』의 「學校考」가 참고되었을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1. 講會의 교재: 『小學』

유주목이 「계당강회절목」의 제1·2 조항에서 제시한 강회의 교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학』이었다. 먼저 제1조에서는 『소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 책인지를 서술하였고, 제2조에서는 『소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를 제시하였다.

『소학』은 유주목의 학문 세계에서 가장 중요시되었던 경서였다. 그는 일찍부터 『소학』을 학문의 기초로 규정했으며,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이 『소학』 안에 있다고 주장하였다.⁶⁾ 이러한 그의 인식은 「계당강회절목」 제1조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소학』은 비록 어린 아이들이 읽는 책이지만, 이것이 『大學』의 근본이다.……선비가 五倫을 밝히고 百行을 돈독하게 하는 것으로 『소학』만한 것이 없다. 『소학』을 익히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고 『소학』을 읽지 않으면 『대학』을 읽을 수 없다. 집에 거할 때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일, 밖에 나가서 스승을 높이고 벗과 친밀하게 지내는 일, 그리고 조정에서 임금을 바르게 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끼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여기 (『소학』)에서 나온다.⁷⁾

위 글에서 유주목은 『소학』을 익히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으며, 가정과 향촌과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소학』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소학』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유주목이 이처럼 『소학』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6) 『溪堂全書』(上), 附錄 권1, 「行狀」(柳道洙 著), “至於小學 學問基址 爲人樣子 以爲在此.”

7) 『溪堂集』, 권11, 「溪堂講會節目」, “小學一書 雖是小子所讀 乃大學之根本也.……蓋士之明五倫·敦百行 莫如小學. 不習小學 不可以做人 不讀小學 不可以讀大學. 處於家而愛親敬長 就於外而隆師親友 以至立於朝而致君澤民 皆由這裏出來.”

앞서 머리말에서 본 것처럼 유주목은 학자가 日用常行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였다.⁸⁾ 또, 그는 당시 사람들이 日用平常의 일은 등한시 하면서 깊고 오묘한 이론에만 뜻을 두고 이를 爲學의 명목으로 삼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⁹⁾ 학문의 목표는 實知와 實行을 얻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⁰⁾ 이러한 주장들은 유주목이 ‘日用的 실천’을 학문의 궁극적 목적으로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일상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윤리 규범들이 정리되어 있는 『소학』은 유주목의 학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서가 될 수밖에 없다. 유주목이 위 인용문에서 “『소학』을 익히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이나 「계당강회절목」 제2조에서 “우리들의 起居言動의 절도가 모두 이 책(『소학』)에 달려 있다.”¹¹⁾고 한 것은 모두 그가 『소학』을 ‘日用的 실천’을 위한 경서로 인식했음을 잘 보여준다.

유주목이 『소학』을 강회의 교재로 사용하는 등 문인 교육에서 『소학』을 중시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학문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주목은 『소학』을 아동의 교재로만 인식하는 당시의 풍토를 비판하였다. 즉,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 적에 『소학』을 공부한 후 장성해서는 더 이상 『소학』을 읽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애당초 『소학』을 공부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¹²⁾ 이는 그가 『소학』을 학자가 평생토록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할 책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또, 그는 『소학』을 공부하는 방법도 단순한 강독에 그쳐서는 안 되며, 『소학』에 수록된

8) 본고 각주 2번 참조

9) 『溪堂全書』(上), 附錄 권1, 「行狀」(柳道洙 著), “常患人舍其日用平常 而妄意於玄深妙奧 把了爲學名目.”

10) 위의 글, “工夫貴得力 須自期於知有實知行有實行 不可以文句間彼此同異.”

11) 『溪堂集』, 권11, 「溪堂講會節目」, “吾人起居言動之節 具在此書中.”

12) 위의 글, “儒生之蒙學讀過 年既長成 不復從事 有若初不經覽者.”

古人の 言行들을 눈으로 읽고 마음에 새겨서 실질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³⁾

유주목이 『소학』을 중시하는 학문관·교육관을 가지게 된 데에는 그의 조부 유심춘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된다. 유심춘은 69세 때인 1830년(순조 30)에 세자 교육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한 『東宮輔翼篇』을 지었다. 이 글에서 그는 세자를 보육하는 도는 선을 기르는 데 있고 선을 기르는 도는 『소학』에 있다고 하였다. 또, 그는 “『소학』은 사람을 만드는 전형으로 『소학』을 가르치면 인륜에서 벗어나지 않고 『소학』을 배우면 반드시 수양으로 나가는 차례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여, 『소학』을 학문을 배우고 덕목을 익히는 수신서이자 修·齊·治·平의 도리를 익히는 기초 수업 과정으로서 중시하였다.¹⁴⁾

이상과 같은 유심춘의 『소학』 인식은 어린 시절 유심춘의 문하에서 학문의 기초를 닦았던 유주목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¹⁵⁾ 특히, 유주목은 『東宮輔翼篇』의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여 2편으로 정리한 바 있었는데,¹⁶⁾ 이 과정에서 유주목은 위에서 살펴본 유심춘의 『소학』 인식을 직접 확인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유주목의 『소학』 인식은 조부 유심춘의 학문 경향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유주목이 강회의 교재로 『소학』을 택한 이유를 검토해 보았다. 요약하면, 유주목은 학문의 궁극적 목적을 ‘日用의 실천’으로 규정했

13) 앞의 글, “今之所以講此 豈徒講爲己. 蓋將於古人言行上 且看讀且體念 爲做實工夫 不作共歸於文具事.”

14) 이형성, 「江臯 柳尋春의 生涯와 思想, 『상주지역 퇴계학파의 학문과 사상』 학술회의 발표문」 2012, 115쪽.

15) 『溪堂全書』(上), 附錄 권1, 「行狀, (柳道洙 著), “自少慨然有求道之志 日薰炙乎江臯先生之庭 得聞大方 家庭之間 其傳受旨訣 已有端的淵源.”

16) 위의 글, “甲子 當寧卽祚 設經筵. 先生曰 昔王考府君 輔翊三朝 及退 集古今教習格言 著爲東宮輔翊 而篇未就 今宜整寫 上備省覽. 遂衍義成二篇書 而未果上.”

으며, 그런 관점에서 『소학』을 가장 중요한 경서로 생각하였고 교육에 있어서도 『소학』을 가장 우선시하였다.

2. 講會의 진행 방식

「계당강회절목」의 제3~18조항은 앞서 말한 것처럼 『소학』 강회의 진행 방식과 講生들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이 내용들은 당시의 『소학』 강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고, 강론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계당강회절목」의 제3~18조항은 다시 그 내용에 따라 1) 강의 전의 준비 과정, 2) 강의, 3) 강의 진행 시 유의사항, 4) 오후 강의와 저녁 학습, 5) 기타 사항 등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강의 전의 준비 과정 (제3~7조항)

「계당강회절목」의 제3~7조항에는 오전 강의를 시작되기 전까지의 준비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강회에 참여한 강생들은 새벽에 기상하여 세수하고 의관을 단정히 한 다음 長老들을 찾아가 문안인사를 올렸으며, 인사를 마치면 각자의 처소에 돌아가 대기하였다(제3조).¹⁷⁾ 아침 식사를 마친 후 齋直이 開座를 고하면 강생들은 모두 開座所로 가서 상·중·하 3등 및 좌·우로 나누어 앉는데, 이때 앉는 순서는 나이를 기준으로 정하였다(제4조).¹⁸⁾

이어 훈장이 강생 중에서 강회 진행에 필요한 임원들을 선발하였다.

17) 『溪堂集』, 권11, 「溪堂講會節目」, “晨興梳洗 整飭衣冠. 進見于長老後 皆斂形端坐 以待開座行禮事.”

18) 위의 글, “朝飯後開座. 食堂罷後少頃 使齋直告開座 一齊出開座所 分上中下三等及左右列而坐 序齒事.”

강회의 임원은 執禮 1명, 讀法 1명, 直日 4명, 日記 6명, 東班首 1명, 西班首 1명, 曹司 2명, 到記 2명 등이다(제5조).¹⁹⁾ 임원이 결정된 다음에는 「圖式」과 「笏記」에 의거하여 강생들 간의 揖禮를 실시하였다(제6조).²⁰⁾ 읍례를 마치면 講席을 설치하고 훈장 이하 강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강석에 앉았다(제7조). 上座의 가운데에는 훈장이 앉았고, 여러 장로들은 훈장의 좌우에 줄지어 앉았다. 東班首와 西班首는 훈장과 강생들 중간에 동서로 나누어 앉고, 曹司는 班首의 아래쪽 가운데에 앉았다. 그리고 강생들은 앞쪽(前行)과 좌우로 나누어서 줄지어 앉았다.²¹⁾

이상에서 강의 전의 준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 몇 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다. 우선 開座所의 座次를 정할 때 나이를 기준으로 한 점과 강생간의 揖禮를 실시한 점이다. 나이에 따른 座次 설정이 長幼의 예를 중시한 것이라면, 강생 간의 揖禮 실시는 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同學으로서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외견상 서로 상반되는 듯 보이지만, 학자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생활 속의 실천을 중시하는 유주목의 학문관·교육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6조를 보면 강생들이 揖禮를 실시할 때 「圖式」과 「笏記」에 의거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계당강회절목」이 만들어지기 전에 강회 진행에 필요한 문건들이 이미 작성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868년의 『소학』 강회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강회가 이미 실시된 바가 있

19) 앞의 글, “爬任. 執禮一員 讀法一員 直日四員 日記六員 東班首一員 西班首一員 曹司二員 到記二員. 定座後 先出曹司二員 曹司進紙筆墨硯于訓長前 訓長卽於其各任名下 呼某名薦出 則曹司書之 揭薦紙于壁上 俾各察任.”

20) 앞의 글, “行相揖禮 依圖式笏記而行之事.”

21) 앞의 글, “訓長在上座當中 諸長老列坐訓長左右 兩班首坐訓長下諸生上 分坐東西邊 曹司坐班首下居中 講生列坐前行及左右列事.”

음을 보여준다. 즉, 현재 내용이 확인되는 사례는 비록 한 차례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유주목이 주관한 강회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고, 따라서 유주목의 교육활동에서 강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컸다고 할 수 있다.

2) 강의 (제8조항)

「계당강회절목」의 제8조는 강의 진행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훈장의 책상 위에 『소학』을 올려놓은 다음, 강생들이 훈장에게 두 번 절하고 책상 앞에 꿇어앉았다. 이어 훈장이 그날 강할 『소학』의 본문을 말하면 강생들이 그 부분을 읽었는데, 이때 字音과 句讀를 분명하고 정밀하게 하도록 했다. 또, 읽는 속도도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하면서 읽는 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것을 주문하였다.²²⁾

강생들이 본문 읽기를 마치면 훈장이 본문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내용을 이해한 강생들은 ‘已見’이라고 대답하였다. 만약 설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不知’라고 대답하고 다시 설명을 요청해서 듣도록 했으며,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후에야 마치도록 하였다. 한편,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直日과 日記는 강생들의 뒤에 앉아서 훈장과 강생들이 문답하는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하였다.²³⁾

3) 강의 진행 시 유의사항 (제9~13조항)

「계당강회절목」의 제9~13조에는 강의 과정에서 강생들이 지켜야 할

22) 앞의 글, “訓長前置冊牀 牀上置小學 講生入再拜 因斂衽跪坐冊牀前. 訓長出大文 講生讀之 字音必明白 句讀必精審 聲無太揚(太揚則涉越無意味) 無太弛(太弛則昏墊無開發).”

23) 앞의 글, “讀訖 謹聽發明其文意之素 所習通者 以已見對 所不習通者 以不知對 更請旨義 承曉解而後 乃掩卷而退 退時再拜而出. 直日及日記坐講生後 諦聽問答 詳記之事.”

유의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강의를 할 때 주변에 둘러서 있지 말 것〔勿圍立(제9조)], 허락 없이 함부로 일어나지 말 것〔勿無端起立(제10조)], 소란스럽게 하지 말 것〔勿喧譁(제11조)], 함부로 말하거나 웃지 말 것〔言笑無妄(제12조)], 강생들은 서로 공경할 것〔諸生相敬(제13조)] 등으로, 강의에 임하는 자세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유주목은 “靜坐한 후에야 사람이 安重해지고 배움이 견고하게 되며, 또 반드시 밝게 듣고 정밀하게 살피게 된다.”²⁴⁾라고 하였으며, 또 강의 시간에 소란스러우면 강독과 문답에 착오가 발생하여 강의를 안 한 것만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²⁵⁾ 즉, 바른 자세로 학업에 임해야 학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주목이 교육과 학습에 있어서 많은 지식의 축적보다는 학업에 임하는 바른 자세의 확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잘 보여준다.

4) 오후 강의와 저녁 학습 (제14~16조항)

『계당강회절목』 제14조는 오후 강의에 관한 내용이다. 오전 강의가 끝나면 훈장과 강생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가 점심식사 후 다시 모여 오후 강의를 하였는데, 진행 방식은 오전과 동일하게 하였다.²⁶⁾

제15조는 저녁식사 이후의 학습에 관한 내용이다. 저녁식사 이후의 학습은 훈장의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강생들의 자율 학습으로 진행되었다.

24) 앞의 글, “蓋靜坐然後 人安重而學堅固 亦必明聽而精察之.”

25) 앞의 글, “喧譁 則不但講讀問答之聲 紛紜迷錯 不分了了 其爲亂雜無統 反不如不講之爲愈.”

26) 앞의 글, “廚人告午飯 曹司請罷座 使齋直告罷座 自訓長以下 齊起入私室. 午飯後開講 自當如初儀事.”

저녁식사 후에는 여러 강생들이 다시 모여서 혹은 강하던 책의 文義를 講究하고 혹은 義理의 說話를 논하며, 혹은 古今 儒賢들의 사적을 논하고, 혹은 『通鑑講目』 중의 인물에 대해 논하고 혹은 經禮의 疑義를 논한다. (그리고) 중간에 文字·詩句로 서로 唱酬한다. 또 혹은 過失을 規責하고 혹은 程課를 勸勉하는 등 切磋琢磨의 道를 다한다.²⁷⁾

위 내용을 보면, 저녁 이후의 학습은 특정한 교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강생들 개개인의 관심사나 학습 능력에 맞게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각자 선택하여 공부하도록 하였다. 즉, 오전·오후 강의에서 다루어진 『소학』이 필수과목이었다면, 위 인용문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강생들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학습하는 과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오전·오후의 강의와 저녁의 자율학습은 강회 기간 동안 매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제16조).

5) 기타 사항 (제17~18조항)

「계당강회절목」의 제17~18조항은 강회에 임하는 강생들의 자세에 관한 내용들이다. 먼저 제17조에서 유주목은 강생들이 항상 몸과 마음을 바르게 유지할 것을 주문하였다.

여러 강생들이 강회에 와서 함께 생활하는데, 강을 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서로 경계하고 신칙해야 한다. 講席에 임해서는 단정하게 앉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과 뜻을 專一하게 한 후에야 脈絡이 어긋나지 않고 義趣가 스스로 구별될 수 있다. 무릇 모든 諧謔하고 浮薄한 습관은 일절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며, 한결같이 善한 것을 보고 仁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법을 삼아야 한다.²⁸⁾

27) 앞의 글, “夕食後諸生復會 或講究所講書文義 或論義理說話 或論古今儒賢事蹟 或論通鑑綱目中人物 或論經禮疑義 間以文字詩句相唱酬 又或規責過失 又或勸勉程課 以盡切磋之道事.”

28) 앞의 글, “諸生次第來會羣居 而未應講時 必須交戒互飭 及當講席 端坐齊整 心志專一

위 인용문에서 “강을 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서로 경계하고 신칙해야 한다.”는 것은 앞서 제15조에서 살펴본 저녁 이후의 학습 내용 중 “過失을 規責하고 혹은 程課를 勸勉하는 등 切磋琢磨의 道를 다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강의 이외의 시간에는 간혹 나태와 방종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강생들 상호간의 경계와 신칙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 정제된 몸과 마음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講席에 임했을 때의 자세에 관한 내용은 앞서 제8~12조항에서 언급되었던 강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종합·정리하여 다시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17조의 내용은 교육과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식의 습득보다는 일상생활에서 正心·修身을 실천하고 성취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18조는 강생들이 선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유주목은 자신이 비록 남을 가르칠 만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강생들이 선생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배우고 익힌다면 반드시 점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 강생들이 학업에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²⁹⁾

이상에서 「계당강회절목」의 내용을 통해 유주목이 주관한 강회 교육의 실상을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유주목은 심오한 이론의 탐구보다는 ‘日用的 실천’을 중시하는 학문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규범들이 실려 있는 『소학』을 중시하였고, 강회에서 『소학』을 핵심 교재로 사용하였다. 또 강회 교육에

然後路脈不差 意趣自別. 凡諸譜譴浮薄之習 切宜禁絕 一以觀善輔仁爲法事.”

29) 앞의 글, “有諸已而後教諸人 古人之學也 凡此皆我之所不能者也. 然如以己之所不能 而導諸生以非其道可乎. 諸生其無曰未出於正 敬受此書 一心不懈 自當有循序漸進之效.”

서도 지식적인 성취보다 학문에 임하는 바른 자세의 확립, 강생 상호간의 존중과 격려, 스승에 대한 공경 등 실천의 측면을 더욱 중시하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Ⅲ. 問目答書를 통한 교육

1. 問目答書의 현황과 특징

전통시대의 서신 왕래는 안부나 용건의 전달 외에도 교육의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서신이 갖는 교육 기능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朱熹의 『朱子大全』에 수록된 편지들을 들 수 있다. 『주자대전』에는 약 2,000여 편의 편지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상당수의 편지들이 주희가 자신의 제자·문인들에게 보낸 것들이다. 이 편지들에는 理氣論을 비롯한 性理哲學과 經學·經世論·出處論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대부분 제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거나 당시 제자들이 처한 상황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각종 서적에서 선별·정리한 것이다. 즉, 편지 왕래를 통한 일종의 ‘일대일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³⁰⁾

30) 李滉(1501~1570)은 『주자대전』 연구를 통해 주희의 서신이 갖고 있는 교육적 기능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희 사상의 핵심이 『주자대전』의 편지에 담겨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주자대전』의 편지 중에서 학문적으로 특히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하여 『朱子書節要』를 편찬하였다. 『朱子書節要』는 17세기 이후 영남 학파와 기호학파를 막론하고 조선 학자들의 주자학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교재로 중시되었다. 『朱子書節要』를 주제로 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윤병태, 「퇴계의 저서와 그 간행 - 『朱子書節要』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28, 1980 유탁일, 「『朱子書節要』의 編纂 流通과 朴光前의 위치, 『퇴계학과 한국문화』 32, 2003

유주목도 위와 같은 편지의 교육적 기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문인 교육에서 서신 왕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은 이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이와 관련하여 유주목의 「행장」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사람들이 혹 의심스러운 의례에 대해 질의하면 질문 내용에 따라 알맞은 답을 제시했는데, 판단함이 中道를 얻었고 典據의 고증이 정당하였다. 원근 각지에서 (질의하는) 편지가 왔는데, 반드시 직접 편지를 써서 질문에 답하였다.³¹⁾

위 글에 따르면, 유주목의 문인들과 주변 학자들이 의례 시행에 관한 의문점들을 問目, 즉 질문 내용을 조목별로 정리한 편지를 통해 질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주목은 여러 예설들을 참고해서 질문에 부합하는 답을 찾아 정리하여 회신을 보냈다고 한다. 실제로 『溪堂集』을 보면 제3~7권에 편지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答○○問目’ 또는 ‘答○○別紙’라는 제목이 붙은 問目答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여기에는 제자들이 유주목에게 질의한 내용과 그에 대한 유주목의 답변 내용이 조목별로 정리되어 있다. 『溪堂集』 권3~7에 수록된 問目答書의 제목과 문답의 주제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강진석, 「퇴계 『朱子書節要』 편집의 방법적 특징과 의의, 『퇴계학보』 113, 2003
송희준, 「『朱子書節要』와 『大東韻府群玉』의 비교 고찰, 『남명학연구』 17, 2004

31) 『溪堂全書』(上), 附錄 권1, 「行狀」(柳道洙 著), “人或以依例稟質 隨問裁答 而斟酌得中 考據亭當 遠近書牘 必手書答問.”

[표 1] 『溪堂集』 수록 問目答書의 내용(別紙 포함)

권	제목	문답 주제
권3	答金承旨問目	斬衰服을 입은 在官者의 起居 儀節, 心制의 服制와 의례
	答姜進士-胥永	妻喪 중에 아들이 병이 들어 主喪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처 의절
	答洪聖中-運植-問目	忌祭의 主祭者, 主婦가 신병으로 助祭하지 못할 때의 대처 의절, 繼曾祖母의 神位合續
권4	答韓希命-泰廷 (別紙)	다른 사람에게 入後한 자가 親父母喪에서 사용하는 호칭
	答鄭子明-翼永-別紙	國喪 중 혼례에서의 新行 실시 여부
	答朴文實問目	六臣 享祀의 의례
	答崔解孝-忠植-問目	掇寓時 祠堂奉還 告由祭의 祝式과 의절
	答康戚-孝植-問目	喪中の 祔廟 의례, 喪中 朔望奠의 실시 여부
	答宋公華-基夏-問目	國喪 중 私喪의 服制
	答宋公華問目	紙牌舉哀의 정당성, 主祭者가 喪을 당했을 때 傍親의 제사 代行 여부
	答權用卿-在默-問目	父母喪 중에 仲父가 사망했을 때의 의절
	答華江書院儒生問目	華江書院의 享祀 규례
答張舜若-永河-問目	立春 시 先祖 제사의 정당성, 立春祭祀의 笏記·祝式	
권5	答金敬輿-尙欽-問目	두 가지 喪이 연속으로 발생했을 때의 服制, 主祭者의 신병으로 다른 사람이 제사를 대행할 경우의 主婦 문제, 繼外祖母에 대한 服制, 書院에서 神主를 埋安할 때의 의절
	答李良伯-濬九-心經問目	[표 2] 내용 참조
	答高中可-允相-問目	國喪 중 私喪의 服制, 喪主가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의 의미, 朝夕上食의 의절
	答李正夫-東佑-別紙	三年喪 기간 중 生辰日의 제사
	答李正夫大學問目	[표 3] 내용 참조

	答李正夫問目 (別紙)	禫月に 윤달을 계산할 것인가의 여부
	答李周範-文九-問目	新·舊 葬禮 遺奠의 設法에 하는가, 各設法에 하는가의 문제
	答李道源問目 (1)	次孫 主祭의 正當性 (美洞 金參봉 사례)
	答李道源問目 (2)	祖考喪이 끝나기 전에 先考喪을 당했을 경우의 의례
	答金可成-洛周-別紙	제사 攝行의 주체와 服制·服色·主婦
	答鄭-昌世-問目	父在母喪의 服制, 喪期가 지나도록 葬事를 못하여 임시 매장했을 때의 服制
	答高舜文問目	병환 중인 부친을 대신해 祠廟에 배알하는 것의 正當性
	答許舜歌問目	后土祭에서 焚香 실시의 正當性
	答人問目	先祖 祠廟의 설립 장소에 관한 문제
	答趙-秉儒-問目	私家의 變制 儀節
권6	答安乃淑-欽 (別紙)	緇服 제도, 神主의 別廟 權奉
	答宋和應-奎穆-問目	父喪 중 母喪을 당했을 때의 복제와 의절
	答盧性中問目	獨子로서 伯父에게 入後한 경우 親父母喪의 主喪 및 喪制
	答李範五-炳漆-問目	祖母喪 중에 父喪을 당했을 때의 服制
	答洪舜卿-孟欽-問目	國喪 중 私喪의 卒哭 시기, 長房奉祀, 忌辰行祀
	答李-炳祐-問目	仲父의 題主 형식
	答洪國弼-道燮-問目	8개월 간격으로 母喪과 父喪을 잇달아 맞았을 때의 喪禮 절차, 高祖父와 祖母의 忌日이 같은 경우에 합당한 의절
권7	與族兄釋孝-宇睦-別紙	庶母喪의 의례
	與族兄釋孝 (附驪逸誤制服追正說)	上同
	答族兄釋孝	知覺說, 晨謁, 心喪 제도, 廬墓制의 正當性, 科業과 仕宦의 문제
	答族姪賢民-道獻-問目	윤달에 設奠行祀하는 것의 正當性

이상에서 『계당집』에 실려 있는 問目答書들의 제목과 문답 주제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를 보면, 몇 가지 예외들을 제외하면 문목답서에서 다른 내용들이 모두 가정에서의 의례 시행, 그 중에서도 喪禮와 祭禮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모습은 앞서 본 행장에서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의례에 대해 질의하면 질문 내용에 따라 알맞은 답을 제시했다.”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주목은 『奎禮類輯』이라는 예서를 편찬한 바 있다. 이 책은 家禮와 邦國禮에 관한 조선시대 주요 학자들의 禮說과 禮書의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는, 조선시대 예학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³²⁾ 이처럼 유주목은 禮學에 조예가 깊은 학자였기 때문에 그의 문인들이나 주위의 동료 학자들이 의례 시행에 관해 유주목에게 많이 질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주목에게 질문한 의례의 내용들은 『朱子家禮』를 비롯한 일반적인 예서의 규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주자가례』 등에는 기본적인 의례 규정과 절차들이 수록되어 있는 반면, 학자들이 유주목에게 질의한 내용들은 일반적 원칙만으로는 적합한 예제를 찾기 어려운 특수 상황, 즉 變禮에 관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러한 변례들은 여러 예설들을 깊이 있게 비교·연구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따라서 가례와 방국례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했던 유주목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의뢰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유주목은 변례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자신이 연구한 여러 예설을 바탕으로 문목의 내용에 적합한 규정과 절차들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회신

32) 도민재, 「溪堂 柳疇陸의 禮學思想」, 『퇴계학과 한국문화』 44, 2009, 55쪽.
『전례유집』의 체제와 내용 구성 및 유주목 예학의 특징에 대해서는 위 도민재의 연구를 참조.

하였다. 이는 앞서 본 『주자대전』 서신의 예와 마찬가지로 질문을 보낸 각 사람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적합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가르쳐 주는, 일종의 ‘일대일 맞춤형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내용적인 면에서도 예학의 이론적 측면보다는 현실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례의 규정과 절차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성이 담보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유주목의 답변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답변을 위해 기존 학자들의 예설을 인용할 때 학파에 관계없이 폭넓게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유주목은 자신이 이황-유성룡의 학통을 계승한 영남학파이면서도 이황·鄭述·李玄逸·李裁 등 영남학파의 예설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근기남인이나 기호학파 학자들의 예설까지 인용하였다. 유주목의 문목답서에서 예설이 인용된 기호학파 학자로는 金集·金長生·朴世采·尹拯 등이 확인되며, 근기남인 학자로는 許穆이 있다. 이처럼 유주목이 問目答書에서 학파에 관계없이 폭넓게 예설을 인용한 것은 그의 예학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앞서 본 『전례유집』을 편찬할 때에도 영남학파와 기호학파를 구분하지 않고 조선 예학자들의 예설을 망라하여 정리하였다.³³⁾ 즉, 그는 학파에 관계없이 폭넓게 예학을 연구함으로써 당면한 문제에 가장 적합한 예제를 찾고자 했으며, 그와 같은 禮學觀이 問目答書를

33) 도민재, 앞의 논문, 60-61쪽 참조.

학파나 정파의 구분 없이 영남·기호 양 학파의 학설들을 망라하여 정리하는 경향은 『전례유집』에서뿐만 아니라 유주목의 모든 저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즉, 그는 조선시대 黨論에 관한 저술인 『朝野約全』에서 붕당정치의 기원과 그 전개 과정을 특정 정파의 시각을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다[우인수, 「溪堂 柳疇睦과 閩山 柳道洙의 학통과 그 역사적 위상, 『퇴계학과 한국문화』 44, 2009, 20쪽]. 또, 성리학 저술인 『四七論辨』에서도 영남학파와 기호학파, 屏派와 虎派를 가리지 않고 모두 24명의 학자들의 四端七情 논변 관련 자료들을 채록·정리하였다[홍원식, 「서애학파와 계당 유주목의 성리설, 『퇴계학과 한국문화』 44, 2009, 40쪽].

통한 교육에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주목의 問目答書 중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가례에 관한 것이 아닌 예외들이 몇 편 있다. 먼저 「答華江書院儒生問目」은 華江書院의 유생들이 서원에서의 享祀 규례에 관해 질의한 것에 답해준 것이고, 「答李良伯-濬九-心經問目」은 『心經』의 주요 논점에 대해 질의·응답한 내용이며, 「答李正夫大學問目」은 『大學』에 관한 질문을 받고 회신한 내용이다. 또, 「答族兄穉孝」의 경우에는 禮制에 관한 내용 외에 知覺說과 같은 성리학 이론, 科業·仕宦 등의 處世 관련 내용 등 여러 주제들이 함께 언급되어 있다.

이상의 예외 사례들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答李良伯-濬九-心經問目」과 「答李正夫大學問目」이다. 이 두 글은 『심경』과 『대학』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유주목의 經學 이해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그의 학문 전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答李良伯-濬九-心經問目」과 「答李正夫大學問目」의 분석을 중심으로 유주목의 『심경』·『대학』 이해를 검토하고자 한다.

2. 『心經』·『大學』 인식과 교육

유도수가 지은 유주목의 「행장」에는 유주목의 학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학문을 함에 있어서 『소학』을 篤信하고 『심경』과 『近思錄』을 尊尙하여 經傳에 발휘했으며, 上帝를 대하는 것처럼 마음을 차분히 하고 本原을 涵養하여 誠意와 正心을 이루는 데에 힘썼다.³⁴⁾

위 글에서 “『소학』을 篤信하고 『심경』과 『근사록』을 尊尙하여”라는 말

34) 『溪堂全書』(上), 附錄 권1, 「行狀」(柳道洙 著), “其爲學也 篤信小學 尊尙心近 而發揮於經傳 潛心對越 涵養本原 而用力於誠正.”

은 유주목이 『소학』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서가 『심경』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유주목이 『심경』을 중시한 것은 그가 ‘正心’, 즉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공부를 중시했기 때문이었다. 위 인용문에도 “誠意와 正心을 이루는 데에 힘썼다.”라는 말이 있거니와, 「행장」의 다른 부분에서도,

항상 탄식하며 말하기를 “세상의 학자들 중에는 正心 공부를 착실하게 하는 이가 전혀 없으며, 심한 자는 간혹 지혜가 충분하다고 하여 세상을 속이고 이름을 도적질하기까지 하니, 그 마음가짐이 도리어 시골 사람들만도 못하다.”라고 하였다.³⁵⁾

라는 기록이 있어서 유주목이 正心 공부를 매우 중시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心에 관한 중요 학설들이 종합·정리되어 있는 『심경』을 유주목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인용문의 “『심경』을 尊尙하여 經傳에 발휘했다.”라는 말을 볼 때, 유주목이 『심경』에 대해 상당한 연구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심경』을 중시하는 유주목의 학문 경향은 앞서 보았던 『소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부 유심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심춘은 17세 때 『심경』을 처음 공부한 이래로 『심경』을 애독하면서 敬 공부를 위주로 하는 心學的 경향의 학문을 추구했으며, 『심경』에서 말하는 治心과 養性, 致知와 居敬의 가르침을 儒家의 범문으로 생각하였다. 또, 48세 때에도 『심경』을 숙독하며 연구하였고 69세 때에는 白蓮菴에서 『심경』을 강론하는 등 일생동안 『심경』의 연구와 교육에 힘썼다.³⁶⁾ 이와 같은 유심춘의 『심경』 중시 경향이 家學을 통해 유주목에게 계승되었다고 할

35) 위의 글, “常喟然曰 世之學者 於正心工夫 元不會着實做 甚者 或至於智足以欺世盜名 而處心反不如鄉人之爲愈.”

36) 이형성, 앞의 논문, 107-115쪽

수 있다.

한편, 유주목은 『대학』 공부에서도 心의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앞서 인용문에서 유도수는 유주목이 “誠意와 正心을 이루는 데 힘썼다.”라고 하였는데, 誠意와 正心은 바로 『대학』의 8조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뒤에 자세히 보겠지만, 「答李正夫大學問目」에서도 유주목은 誠意와 正心の 두 측면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³⁷⁾ 이는 유주목이 『대학』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에 誠意와 正心, 즉 마음 공부를 위주로 하였음을 보여준다. 또, 이와 관련하여 「答李良伯-濬九-心經問目」의 네 번째 조목에 『대학』 「성의장」에 관한 문답이 수록되어 있는 점도 주목된다.³⁸⁾ 『심경』에 대한 問目에서 『대학』 「성의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것은 유주목이 평소 마음 공부의 측면에서 『대학』을 『심경』과 연결시켜 이해했으며, 이런 견해가 문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유주목이 『심경』과 『대학』에서 마음 공부를 강조한 것은 『소학』을 중시하는 그의 학문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학』의 내용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들, 즉 修身과 齊家에 관한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修身·齊家を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誠意와 正心이다. 따라서 단순히 아동들이 맹목적으로 『소학』을 공부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소학』의 정신을 체득하고 그 규범의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誠意·正心の 마음 공부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주목의 『심경』·『대학』 연구와 교육은 『소학』을 강조하는 그의 실천적 학문관·교육관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37) 본고 [표 3]의 내용 참조.

38) 본고 [표 2]의 내용 참조.

이제, 「答李良伯-濬九-心經問目」과 「答李正夫大學問目」를 통해 유주목이 『심경』과 『대학』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答李良伯-濬九-心經問目」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答李良伯-濬九-心經問目」의 문답 내용

논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心學圖」 人心, 道心, 人欲의 개념	「心學圖」에서 人欲을 赤子心 한쪽에 전적으로 소속시킨 것과 人心을 ‘覺於欲者’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 추우면 먹고 배고프면 입고 자 하는 人欲이 생기는 것은 大人과 赤子が 마찬가지로 인데, 人欲을 赤子心으로 소속시킬 수 있는가?	「心學圖」에서 人欲을 赤子心 한쪽에 전적으로 소속시켰다고 본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人心이 곧 人欲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形氣의 사사로움에 각성되기 때문에 ‘覺於欲’이라고 하였다. 춥고 배고프면 입고 먹으려는 것은 人心이고, 마땅한 옷을 입고 마땅한 음식을 먹는 것이 道心이며, 마땅하지 않은 衣食을 취하거나 춥고 배고프지 않으면서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원하는 것은 人欲이다.
「人心道心章」 人心과 人欲의 구분	人心과 人欲에는 病根의 심하고 심하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五峰이 “天理人欲 同行異情”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天理·人欲이 발하기 전부터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 되니, 잘못된 견해가 아닌가?	朱子가 晩年에 人心과 人欲을 두 節로 나누었으니, 마땅히 이것을 正論으로 삼아야 한다. 人心은 天理이고, 그것이 사사로움에 빠졌을 때 人欲이 된다. 人欲은 人心이 私欲을 따른 것이다. 따라서 人心과 人欲에 病根의 심하고 심하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貨色을 좋아하는 마음은 聖인과 凡人이 동일하지만, 그 마음이 발하는 곳에서 公과 私, 正과 邪가 나누어진다.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다.

<p>「閑邪存誠章」 ‘邪’의 의미</p>	<p>吳澄은 ‘思無邪’의 ‘邪’를 私欲·惡念으로, ‘閑邪’의 ‘邪’를 ‘匪欲匪惡’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렇다면 ‘無邪’와 ‘閑邪’는 서로 다른 일이 되는 것인가? 또, 私欲·惡念 외에 별도의 邪念이 있는 것인가?</p>	<p>程子是 “천하에는 하나의 善이 있고 하나의 惡이 있다. 善에서 떠나면 惡이 되고, 惡에서 떠나면 善이 된다.”라고 하였다. 또, 西溪 李氏는 “天理와 人欲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一分의 人欲을 막아 내면 一分의 天理가 보존된다.”라고 하였다. 두 ‘邪’자에 비록 重輕의 차이는 있지만 마침내 私欲·惡念으로 돌아가는 것은 동일하다.</p>
<p>『大學』 「誠意章」 “如見其肺肝”</p>	<p>이것은 사람이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을 말함인가? 아니면 小人의 外面 情狀과 內面 心肺를 밝게 살펴서 아는 것을 말함인가?</p>	<p>사람이 小人을 살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p>
<p>『孟子』 「不動心章」 『心經』 「牛山章」</p>	<p>『心經』은 聖賢이 心에 대해서 말한 것들을 모은 것이는데, 『맹자』의 「不動心章」이 빠져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牛山章』은 전적으로 氣를 말했음에도 『心經』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p>	<p>「不動心章」은 正心·養心에 관한 것이지만, 그 大旨가 集義養氣에 집중되어 이것으로 不動心의 절도를 삼고 있다. 이는 初學者가 操存省察하는 방법과는 크게 다르니, 아마도 이 때문에 빠진 것 같다. 『牛山章』이 오로지 氣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하다. 내 생각에는 이 장이 『心經』에 포함된 것은 의심할 만한 일이 아니다.</p>

이상에서 「答李良伯-濬九-心經問目」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총 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문답 내용에서 핵심은 1~3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논점은 人心이 形氣(人欲)의 지배를 받는가 天理(道心)의 지배를 받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유주목은 人心이 形氣(人欲)의 지배를 받으며 邪와 惡이 되고 天理(道心)의 지배를 받으면 正과 善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유주목은 '邪'의 개념을 '無邪'의 私欲·惡念과 '閑邪'의 匪欲匪惡으로 나누어 보는 吳澄의 견해에 대해, 비록 重輕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私欲·惡念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여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는 그가 '邪'의 제거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견지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유주목은 私欲·惡念을 제거하여 人心이 道心の 명을 따르게 하는 것을 학문과 교육의 핵심으로 판단했으며, 그런 관점에서 『심경』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에 관한 「答李正夫大學問目」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答李正夫大學問目」의 문답 내용

논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大學章句』 서문	朱子가 序文에서 특별히 仁義禮智의 性を 강조하였다. 그런데 三綱領·八條目 중에는 性이 한 글자도 보이지 않으니 어째서인가?	傳文에서 비록 性を 말하지는 않았지만, '明德'이 곧 心性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문에서 논한 性은 傳文의 '正心'과 관계된 것이다. 性を 인하여 그 치음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首章」 盧玉溪 주석 “明明德 是下文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之綱領 新民是下文齊家治國平天下之綱領 止至善 總明明德新民而言”	止至善이 明明德과 新民을 총괄하는 것이라면 明·新 두 글자는 至善에 포함되는 것인데, 어찌 나란히 三綱領이 될 수 있는가? 明明德은 단지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의 강령일 뿐 齊家·治國·平天下와는 관계가 없는가? 新民 역시 齊家·治國·平天下의 강령일 뿐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과는 관계가 없는가?	사람이 마땅히 할 비는 修己·治人 두 가지이므로 明德과 新民을 말하였고, 또 修己治人을 대충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다시 止至善을 말하였다. 聖賢의 사업은 이 세 가지뿐이다. 明·新이 至善에 포함된다 하여 (강령에서) 至善만 말하고 明·新을 제외한다면 이것은 빈 그릇일 뿐이다. 明이 아니면 무엇으로 齊家·治國·平天下를 이루고, 新이 아니면 무엇으로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을 이루겠는가? 明德은 나의 덕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新民은 백성의 덕을 밝히는 것이니, 이름은 다르지만 실상은 동일하다.

<p>八條目的 서술 순서</p>	<p>上節에서는 ‘先治其國’ 앞에 ‘欲平天下者’ 대신 ‘明明德’ 세 글자를 썼고, 下節에서는 ‘國治’ 아래에 ‘明明德於天下’ 대신 ‘平’ 한 글자만 썼으니, 어째서인가?</p>	<p>治와 평은 모두 明德의 일이다. 이미 ‘明明德於天下’를 성취했으면, 천하는 스스로 평하게 된다. 下節은 순방향으로 서술하여 明明德의 功效를 나타내었다. 功效가 이미 이루어진 후에 ‘平’ 한 글자를 뽑아서 ‘明明德於天下’의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p>
<p>「誠意章」 「正心章」</p>	<p>傳의 다른 장에는 章下註가 없는데 유독 「誠意章」과 「正心章」에만 별도의 章下註가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p>	<p>이 두 장은 서두에서 각각 “誠意는 致知에 있다.”, “正心은 誠意에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章下에 특별히 그 뜻을 말하여 보충한 것이다.</p>
<p>「傳 6章」</p>	<p>『大學』은 모두 曾子의 교훈인데, 유독 傳6장에서만 ‘曾子曰’을 붙여서 명시한 것은 어째서인가?</p>	<p>傳6장은 經文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曾子가 평소에 암송하며 경계로 삼던 말이다. 그래서 門人들이 ‘曾子曰’ 세 글자를 더하여 구별한 것이다.</p>
<p>「傳 10장」 “前四章 統論 綱領旨趣. 後六章 細論條目工夫.”</p>	<p>綱領에는 ‘旨趣’라고 말했고 條目에는 ‘工夫’라고 말했으니, 어떤 의미인가? 旨趣는 어디에서 볼 수 있고, 工夫는 어디에서 증명할 수 있는가?</p>	<p>綱領은 統體說이어서 旨趣라고 하였고, 條目은 逐件說이므로 工夫라고 하였다. 旨趣와 工夫를 보고 증명하는 곳은 老先生の 「論大學書」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니,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p>

이상에서 「答李正夫大學問目」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6개의 조목 중 4~6번은 『대학』의 체재나 용어에 관련된 것들이고, 『대학』 이해와 관련된 핵심 내용들은 1~3번에 집중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조목에서 유주목은 『대학』의 3강령 중 明德을 心性の 일로 규정하고, 『대학장구』 서문에서 주희가 강조한 性是 곧 正心 공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두 번째 조목에서는 明明德을 ‘나의 德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新民을 ‘백성의 德을 밝히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대학』의 3강령이 모두 明德, 즉 心性에 관계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조항에서는 明德

을 밝히면 平天下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治平이 明德, 곧 心性の 일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유주목이 「答李正夫大學問目」에서 강조한 『대학』의 핵심은 마음 공부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주목은 마음 공부의 측면에서 『대학』을 이해하고자 했으며, 문인들을 가르칠 때에도 마음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주목이 말하는 마음 공부는 『소학』의 정신을 체득하고 그 규범의 실천을 체질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로서 誠意와 正心を 이루는 것이었다. 바로 이 점에서 그의 마음 공부는 실천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유주목 교육활동의 의의

유주목의 교육활동은 강의를 통한 교육과 問目答書를 통한 교육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강의를 통한 교육의 실상은 1868년에 실시된 강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당강회절목」에 따르면, 당시 교재는 『소학』이었다. ‘日用的 실천’을 학문의 궁극적 목적으로 생각한 유주목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윤리 규범들이 실려 있는 『소학』을 매우 중시했으며, 교육에서도 『소학』을 핵심 교재로서 우선시하였다. 또, 「계당강회절목」에는 강회의 진행 절차와 강생들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유주목은 지식적인 성취보다도 학문에 임하는 바른 자세, 강생 상호간의 존중과 격려, 스승에 대한 공경 등 실천의 측면을 더 중시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주목은 제자들이 질문 내용을 問目으로 정리해 보내면 그에 맞는 답변을 회신해 주었는데, 이러한 問目答書는 그의 교육활동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계당집』에 수록된 問目答書들을 정리해 보면, 상례·제례 시행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주목의 제자들과 동료 학자들은 예서의 일반적인 규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變禮를 만날 경우 예학에 조예가 깊었던 유주목에게 問目を 보내 질의했고, 문목을 받은 유주목은 질문에 부합하는 답변을 연구하여 答書를 보냈다. 問目答書를 통한 교육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맞춤형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심경』과 『대학』에 관한 問目答書는 유주목의 경학 이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유주목은 『심경』에서는 私欲·惡念의 제거를 통한 道心의 확립을 강조했으며, 『대학』에서는 明明德과 新民을 心性의 일로 규정하는 등 마음 공부의 측면을 중시하였다. 이는 그가 『소학』의 정신을 체득하고 『소학』 규범의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때, 유주목의 『심경』·『대학』 연구와 교육은 『소학』을 강조하는 실천적 학문관·교육관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유주목의 학문관·교육관은 직접적으로는 조부 유심춘의 학문경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그가 속해 있던 서애학파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애학파는 기본적으로 이황의 성리설을 계승하면서도 이론적 친착과 심화보다는 도덕적 실천과 현실적 실현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 따라 서애학파는 尊德性 공부를 중시하는 일종의 朱子學的 心學을 전개하였고, 도덕적 실천을 위해 『소학』과 『心經附註』 공부를 중시했으며, 사회적·현실적 실현을 위해 예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³⁹⁾ 이와 같은 서애학파의 학문 전통은 일상의 실천의 중시했던 유주목의 교육관 및 『소학』 강회와 問目答書를 통해

39) 홍원식, 앞의 논문, 33쪽.

확인한 교육 내용들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즉, 유주목의 교육활동은 서양 학파의 학문 전통이 19세기 중·후반 영남의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한편, 유주목이 살았던 19세기 중·후반은 서양의 학문과 기술의 수용이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유주목은 내용적인 면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여전히 儒家의 전통적 교육 방식을 고수했는데, 여기에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그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병인양요 당시 義兵 창의를 계획했을 정도로 서양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유주목은 서양 문물을 진멸하고 聖學에 힘쓰며 儒教를 존송하는 것이 나라의 근본을 회복하는 방도라고 주장하였다.⁴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 儒學 교육의 실시는 바로 ‘崇儒教’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주목이 儒家의 전통적 교육 방식을 강화·고수한 것은 西勢東漸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근본을 회복하기 위한 그 나름의 대처 방안을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주목의 교육활동이 갖는 현대적 의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유주목의 교육활동은 儒家의 전통적 내용과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를 현대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하지만, 교육활동의 이면에 깔려있는 그의 교육 원칙과 정신은 현재의 교육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주목은 강회 교육에서 많은 지식의 습득보다 진지하고 근면·성실한 학습 태도, 스승에 대한 공경, 강생 상호간의 존중과 격려 등을 더욱 중시하였다. 또 그는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심오한 이론 탐구보다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윤리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유주목의 교육 원칙을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인성 교육의

40) 『溪堂全書』(上), 附錄 권1, 「行狀」(柳道洙 著), “先生上書曰 異流固當殄滅 而勉聖學 崇儒教 此反本之道.”

강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입시 위주의 교육과 성적지상주의,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 당연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유주목의 교육 원칙은 현실을 모르는 '迂闊'한 것으로 비워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현실이 비정상적이며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 개혁의 방향으로 공교육 확립과 인성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유주목의 교육활동에 내포되어 있는 인성 교육의 원칙은 작금의 교육 현실을 개혁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거울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溪堂全書』 상·중·하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溪堂集』 (『한국문집총간』 313, 한국고전번역원)

『小學集註』, 『大學章句集註』, 『心經』

금장태, 『유학근백년(2)』 한국학술정보, 2004, 203-211쪽.

이우성, 『『溪堂全書』 해제』 『溪堂全書(上)』 아세아문화사, 1984, 1-9쪽.

우인수, 「溪堂 柳疇睦과 閩山 柳道洙의 학통과 그 역사적 위상」 『퇴계학과 한국문화』 44, 2009, 5-27쪽.

홍원식, 「서애학과와 계당 유주목의 성리설」, 『퇴계학과 한국문화』 44, 2009, 29-49쪽.

도민재, 「溪堂 柳疇睦의 禮學思想」 『퇴계학과 한국문화』 44, 2009, 51-76쪽.

이형성, 「江阜 柳尋春의 生涯와 思想」 『상주지역 퇴계학과의 학문과 사상』 학술회의 발표문, 2012, 107-126쪽.

Abstract

A Study on Gyedang(溪堂) Ryu Ju-mok(柳疇睦)'s Educational Activities

Kang, Moon-Shik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Ryu Ju-mok(柳疇睦, 1813~1872), who lived at Yoengnam(嶺南) in 19th century. His educational activities were performed in two ways. One was a lecture and the other was the education using the replies to people's letters of questions.

Gyedang gangheo jeolmok(『溪堂講會節目』), the manual of the lecture which was performed in 1868 showed the real states of Ryu Ju-mok's lecture. The textbook of that lecture was *Sohak*(『小學』) and Ryu Ju-mok placed more emphasis on the mental attitudes for study and the respect to the teacher and fellow students than scholastic achievements. Those reflected Ryu Ju-mok's thought of learning that put emphasis on the practicing Confucian ethical standards in daily life.

Ryu Ju-mok's students and other people gave questions to Ryu Ju-mok by letters and Ryu Ju-mok studied the questions and proposed the solutions by replies. The greater part of people's questions are the problems about family rites because Ryu Ju-mok had profound knowledge about the study of ritual(禮學). Meanwhile, Ryu Ju-mok emphasized on the study of mind in the replies of letters about *Simgyeong*(『心經』) and *Daehak*(『大學』) because he thought that the study of mind was the precondition of practice ethical standards.

Ryu Ju-mok's educational activities like above inherited the academic traditions of Seoae School(西厓學派) that made much of ethical practice.

In 19th century, the western culture spread widely at Joseon. Ryu Ju-mok thought that the spread of western culture was great problem to Joseon and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education of Confucianism must be enlarged. For this purpose he held fast to the traditional methods of Confucian education.

Key Word

Ryu Ju-mok(柳疇睦), *Gyedang gangheo jeolmok*(「溪堂講會節目」), *Sohak*(『小學』), the replies to people' s letters of questions(問目答書), Seoae School(西厓學派)

- 논문투고일 : 2011.12.23 심사완료일 : 2012.2.6 게재결정일 : 2012.2.10